

광주에 드론공원 조성된다

광주시·익산국토청·북구, 드론공원 조성 업무협약 체결

북구 드론비행연습장 확장해 1만여㎡ 규모 레저·문화시설 조성

광주 북구 대촌동 광주시민의 숲 부근 하천부지에 위치한 드론비행연습장에 1만343㎡ 규모의 드론공원이 조성된다.

광주시는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드론의 저변 확대와 시민들의 레저활동을 위해 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북구와 '드론공원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가 하천부지 내 드론비행이 가능한 레저·문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하천범용허가 세부기준을 변경해 추진하게 됐다.

앞으로 시는 시민들의 레저, 취미활동을 위한 행·재정적 투자를 하고, 익산국토청은 하천부지 내 점용허가를, 광주 북구는 드론공원 조성과 드론공원 활성화 및 운영

을 맡게 된다.

드론비행연습장은 지난 5월부터 드론 교관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기사를 통해 기초체험반, 항공촬영반 등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체험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주중에는 지역 내 드론 관련 기업들의 테스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예약을 통해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시는 향후 드론공원을 초경량비행장치 상시 실기시험장으로 지정받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의 중이다. 상시 실기시험장으로 지정되면 시민들이 드론 자격증 취득을 위해 전남 순천, 장흥 등 타지로 가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는 제31보병사단, 북구와 지난 5월 '광주 드론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드론 테스트베드 구축 관련 협약'을 체결하고 제31보병사단 내에 10월까지 드론 테스트베드를 구축기로 했다.

8월에는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31사단,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 LIG넥스원과 '국방드론 산업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손경중 시 전략산업국장은 "지역 전략산업인 드론산업 육성을 목표로 먼저 시민들이 드론을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향후 시민의 숲 풀놀이장, 야영장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더욱 풍부한 즐길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표정두 열사 정신계승비 이전 제막식 이음성 광주시장이 18일 오전 서구 5·18기념공원에서 열린 '표정두 열사 정신계승비 이전 제막식'에 참석해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박상철 호남대총장, 김후식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장, 유가족 등과 제막식을 하고 있다.

김영록 지사, 어류 폐사 여수 현장 방문

"적조 방지에 총력"

남해안 적조로 인해 전남 여수의 양식 어류 24만3000마리가 집단 폐사한 가운데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8일 여수 경호동 야도해역 적조방제 현장을 둘러보고 피

해 어가를 위로했다.

야도 해역은 지난 10일자로 적조경보가 발령된 곳으로, 유해성 적조생물인 코클로디니움 1㎍에 최고 4500개체가 출현해 지속적으

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김 지사는 이날 야도 해역 방

에 이어 적조 방제 현장인 여수 남면 화태, 화정면 개도 해역을 점검하고 방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전남도는 적조주의보가 발령된 지난 8월 23일부터 현재까지 선박 42척과 인력 1257명을 동원해 가두리양식장을 중심으로 2644톤의 황토를 살포했다.

"21일 밤, 무등산에서 풍류달빛공연 즐기세요"

오후 7시 무등산생태탐방원

달빛 내리는 9월의 밤, 무등산생태탐방원(광주 북구 덕의길 20)에서 제5회 풍류달빛공연이 펼쳐진다.

풍류달빛공연은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문화재단과 광주MBC가 공동주관하며, 매월 보름달 가까운 토요일에 열리는 무료공연이다.

이번 공연은 21일 오후 7시 무등산생태탐방원에서 진행되며, 남사당놀이보존회와 광주시립창극단이 참여한다.

'남사당놀이보존회'는 2019 영국여왕방문 20주년 기념공연과 부평 풍물축제, 2017 삼랑성 역사문화축제 등에 참여한 단체다.

남사당놀이는 풍물굿(농악), 버나(사발돌리기), 살판(판저주), 어름(줄타기), 덧뵈기(가면극), 덜미(꼭두각시놀이)의 6종목으로 음악과 곡예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전통종합예술이다. 1964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으며 2009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남사당놀이보존회는 이번 공연에서 어름(줄타기)과 풍물굿을 선보인다.

'풍물굿'은 농사의 능률을 올리기 위한 농악, 세시의례와 세시놀이에 사용되는 음악, 경기도당굿이나 동해안별신굿 같은 무속음악 등 다양한 기능으로 사용됐다.

악기연주와 몸동작, 행렬이 한데 어우러져 있으며, 악기는 쟁과리, 장구, 북, 징 등 4개 악기(사물)와 나발, 태평소, 소고 등으로 편성된다.

창단 30주년을 맞는 광주시립창극단은 다양한 레퍼토리를 통해 문화예술 향유를 제공하고 국악의 대중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2018 미국 샌안토니오시 건립 300주년 해외공연과 2018 전라도 천년맞이 특별기획공연 등에 참여했으며, 이번 공연에서는 부채춤, 향발무, 앉은반 사물놀이, 강강술래를 선보인다.

광주시립창극단은 부채춤을 현대적 감각에 맞추어 각색하고 변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꽃말을 가진 무궁화 형상을 만들어내며 절정에 이른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풍류달빛공연은 매회 MBC '우리기락 우리문화'를 통해 전국 방송되며, 이번 공연은 11월2일 오전 5시에 전국 방송으로, 같은 날 오전 9시45분에 광주지역에 방송될 예정이다.

동구, 광주용산NH1단지 내 사회적기업 입주협약

광주 동구가 (주)교육극단파라세(대표 임홍석)와 함께 18일 구청 3층 접견실에서 용산 LH1단지 내 '사회적기업 공간 입주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동구는 용산지구 대규모 입주에 따른 주민들의 복리와 편의 증진을 위해 단지 내 복리시설을 만들기로 하고, 지난 6월 LH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백인철)와 '광주용산 LH1단지 내 복리시설 공간 무상 임대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사회적기업 공간(75㎡)을 사용할 기업을 공개모집하고 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주)교육극단파라세가 입주기업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협력기관 한자리에

광주 서구는 지난 17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세부 사업 추진 협력기관들이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구는지난 6월부터 지역사회돌봄(커뮤니티케어)선도사업을 추진, TF팀과 18개동 통합돌봄 안내창구를 개설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해왔다.

또한, 2월부터 연계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7월 위탁기관 선정 등을 통해 52개의 기관·단체와 다직종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남구, 2020년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

광주 남구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0년 전통시장 및 상점이 활성화 공모사업'에서 3개 사업이 선정돼 무등시장과 봉선시장 활성화 사업에 나선다.

남구는 18일 "관내 전통시장인 무등시장과 봉선시장에 안전한 쇼핑환경을 구축하고, 전통시장 이용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총사업비 5억1,200만원을 투입해 각종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남구는 이번 중앙정부 공모사업에서 ▲희망사업 프로젝트 ▲시장경쟁력 우수지역 지원사업 ▲화재 알람시설 설치 지원사업 등 3개 분야에서 선정됐다.

북구, 4차 산업 융합 미니클러스터 육성 박차

광주 북구가 민선7기 새물결 선보인 '4차 산업 융합 미니클러스터' 육성에 소매를 견었다.

북구는 "광주테크노파크에서 4차 산업 융합 미니클러스터 20개 회원사 관계자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AI(인공지능), AR·VR(증강·가상 현실), 드론 등 4차 산업 분야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고 18일 밝혔다.

미니클러스터 회원사들은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4차 산업 융합 미니클러스터'에 대체로 만족하면서

서도 추가로 필요한 지원에 대해서 하심탄회하게 건의했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4차 산업 상품기획 컨설팅 지원 ▲드론 테스트 공간 구축 ▲해외시장개척 지원 ▲4차 산업 관련 조기교육 및 진로체험 활성화 등 4차 산업 업종 기업들이 갖는 고민들이 주를 이뤘다.

광산구, 대학생 자원봉사 협업센터 운영 업무협약

18일 광주 광산구가 광주여자대학교에서 구 자원봉사센터, 광주여대와 '1365 자원봉사 협업센터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여대 캠프'로 명명된 '1365 자원봉사 협업센터'는, 자원봉사 거점 확대, 대학생 자원봉사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해 2일 광주여대에 설치됐다. 이 협업센터 개소로 광산구 자원봉사캠프는 16곳으로 늘었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대학생 자원봉사 수요처 발굴, 특기·재능 활용 프로그램 지원, 사회봉사활동 소양 교육 등에 나선다.

나아가 대학생 자원봉사 홍보, 우수사례 발굴·표창 등으로 자원봉사의 체계성·다양성 수위를 높여갈 예정이다.

임행택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